

### “무차선대회 준비, 교구와 소통 필요”

교구본사주지協, 24일 회의서 대회 준비 ‘쓴소리’

군포교 진흥 위해  
1사찰 1군법당 결연

부처님오신날 연동회에 맞춰 개최할 예정인 간화선 무차대회에 대해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이 집행부의 ‘소통 부재’에 대해 비판했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우승)는 3월 24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제 38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회장 우승스님(신흥사 주지)을 비롯해 부회장 현호 스님(법주사 주지), 총무간사 덕문 스님(동화사 주지), 원산 스님(동도사 주지), 수불스님(범어사 주지), 원허 스님(쌍계사 주지)을 비롯한 교구본사 주지스님 17명과 총무원에서는 재무부장 보경 스님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및 간화선 무차대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교구본사와 협조·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지만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주지 스님들의 지적이다.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5월 16일 간화선 무차대회는 한국불교의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행사이다. 행사를 여법하게 진행하면 불교의

위상이 올라가나 그 반대이면 위상이 오히려 추락 할 수 있다”며 “대동단결하여 협조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고 말했다.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은 “빠른 시일 내에 교구본사에서 협조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1교구본사 사찰 1군법당 자매결연’을 맺어 군포교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군총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은 “현재 많은 교구에서 군포교를 위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하지만 420개의 법당이 있지만 수 십개가 폐쇄됐다”면서 “본사와 자매결연을 맺자는 것은 물질 지원 뿐 아니라 인적 지원에 대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은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군포교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한국 불교의 미래이다. 법사들이 앞장서고 스님들이 적극 지원 후원해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종립대학 동국대 사태에 대한 결의문 채택 여부도 논의됐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한편, 제39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5월 28일 오후3시 제3교구본사 신홍사에서 개최된다. **하성미 기자**

### 표충사 토지 환수 ‘길 열리다’

창원지법, 13일 매각 토지 반환 결정

전 주지의 비리로 불법 매각된 표충사 토지에 대해 토지처분계약이 무효이며 이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종단 승인 없는 사찰 토지의 불법 매각이 ‘무효’라는 법적 판단을 얻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3월 13일 표충사가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에 대해 “표충사 공식통장에 입금된 13억 9천 1백 만원을 매수자에게 반환하고, 그 토지는 표충사에게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매수자가 표충사 소유의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주차장 부지를 아영장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도 “콘크리트 포장을 원상복구하고 식재한 나무를 수거하라”는 판결을 냈다.

이 같은 판결은 종단 승인 없이 매각된 토지는 무효임을 입증한 첫 사례로 남게 돼 의미가 더 크다. 또한 매각 토지 모두가 경내지로 인정돼 이후 전통사찰의 무단 토지매각을 막게 됐다.

또한 주지 개인이 받은 토지매각대금은 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찰의 공식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매매대금으로 인정돼 사찰이 공적기관임을 대내외적으로

표충사 전 주지 재경 스님(김봉관)과 사무장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는 일반 기업 범죄 형량보다 높은 징역 7년 및 징역 4년 6월이 선고됐다.

한편, 관할 교구본사인 통도사는 2012년 8월 토지 불법 매각 사실을 확인하고 전 주지를 형사고발하고, 더 이상의 토지 처분을 막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표충사 불법 토지매각 대책과 사찰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원산, 이하 대책위)’를 구성, 불법 매각된 부동산 환수를 위한 법적 대응을 전개해 왔다.

대책위원장 원산 스님은 “수탈사인 표충사의 더 이상의 혼란과 재산적 피해를 막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그러나 전 주지의 도주와 사찰을 사유화한 많은 행위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도 “표충사 사건 전반은 반드시 우리 종단에 분명히 기록되어 향후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돼야 한다. 이번 사태에 해결하는 데 힘을 모은 통도사 사부대중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30억 예산 사찰부터 재정 공개하자”

조계종, 3차 100인 대중공사… 재정 공개 한목소리

사찰 재정 투명화를 위해 조계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을 가진 사찰부터 재정 공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조계종은 3월 26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100인 대중공사’ 3차 회의를 열고 ‘사찰 재정 투명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대중공사에서는 현재 조계종 사찰들의 재정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이 발제한 브리핑에서는 현재 조계종 사찰 재정 현황이 공개됐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사찰 예결산서를 제출한 곳은 946 곳(35%)에 불과했다. 종법에 따라 사찰들은 의무적으로 예결산서를 종단에 제출해야 하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 특히 사설사업이 예결산서를 제출한 비율은 전체 사업에 22%밖에 되지 않는다.

1년 결산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사찰 81 곳 중 사찰 재정을 공개 하는 곳은 48곳으로 59%에 그쳤다. 재정 공개 사찰은 대부분 사찰운영위원회를 이용해 공개했고, 법회와 사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공개하기도 했다.

회의에 참가한 대중들은 각 모둠별로 나눠 분임 토의를 진행한 후 최종 토론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이날 최종 토론에서

는 30억 원의 예산 규모를 가진 사찰부터 재정 공개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모듬 토론자들은 “사찰 재정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주지가 독선적으로 사찰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스님들의 횡령·호화생활 등의 일탈도 문제가 된다”면서 “우선적으로 직영·직할·특별분담금 사찰과 예산이 30억 원 규모인 사찰

10억 예산 사찰 59%만 재정 공개

사설사업 22% 예결산서 제출

“재정 투명화 시대적 과제”

범위·내용 의제됨서 결정키로

은 올해부터 재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모듬에서는 “스님들의 보시금을 현실화하고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승려복지를 활성화하고 사찰 재정을 사회 활동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승려복지 변화와 더불어 사설사업을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4모듬은 “재정을 공개하지 않는 스님들은 중앙총무 기관 등에 요직을 맡을 수 없게 하는 등 근본적인 소유욕을 제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계종은 3월 26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100인 대중공사’ 3차 회의를 열고 ‘사찰 재정 투명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면서 “사설사업은 과감히 청산하고 사찰 재정을 중앙 집중화 한 뒤 재분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들이 독살이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승려복지 활성화도 과제로 꼽혔다.

이밖에도 문화재관람료 사찰이나 관광 사찰에는 카드 결제와 전자 결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문화재관람료 수입이나 토지처분금 등은 해당 사찰이 아닌 종단 목적기금, 포교와 교육을 위한 기금 등 공적 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동추진위원장 도법 스님은 “모듬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나온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면서 “눈에 보이는 성과도 있어야 한다. 모범적으로 올해부터 재정투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집행위원장 일강 스님은 “제안 내용은 기획팀과 의제실무팀에서 정리해 다음 대중공사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입제식에서는 2차 대중공사에서 논의된 미래세대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보고도 이뤄졌다.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미래세대위원회를 종령기구로 설치하기로 했으며, 포교원이 주관하게 된다”면서 “위원회 산하에 어린이, 청소년, 청년, 정적연구분과를 두고 외부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차 100인 대중공사는 4월 29일 서울 불광사에서 ‘종단 불신,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박익수 수습기자**

## 불교, 세월호 참사 아픔 함께 한다

자승 스님, 실종자 가족 예방서 “선체 인양 협조” 약속

오는 4월 14일 1주기 위령제  
4월 16일엔 전국 사찰 타종도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은 3월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선체 인양을 위해 불교계가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은 실종자 권혁규 군의 이모인 베트남인 판복한 씨가 실종자 귀환을 염원하는 노란 리본을 달아주고 있는 모습.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40여 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의 가족은 “유가족이 되고 싶다. 선체를 인양해달라”는 호소를 거리로 나와 외치고 있다. 이들의 호소에 불교계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23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 10여 명이 예방한 자리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해 불교계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자리에서 실종자 허다운 양(단원고 2)의 어머니는 “참사 1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 9명이 차가운 바다 속에 있다”면서 “살

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신만이라도 찾아 편히 보내주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체 인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등이 평묵향 법당에서 실종자 귀환과 희생자 추

모를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종자 가족은 아무 힘이 없다. 4월 16일 이전에 선체 인양 결정을 정부가 발표할 수 있도록 총무원장 스님께서 답화문이라도 발표해주길 바란다. 불교계가 나

서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불교계도 잘 알고 있다”면서 “하루 속히 인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관계 부처에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종단 차원의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스님은 “오는 4월 14일 조계사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실종자들의 귀환을 염원하는 위령제와 추모제를 개최하려 한다”고 밝혔으며, “실종자 가족들이 요청대로 4월 16일에는 전국 종단 사찰에서 추모와 귀환의 염원을 담은 타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방에서는 실종자 권혁규 군의 이모인 베트남인 판복한 씨가 자승 스님에게 실종자들의 귀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을 달아주기도 했으며, 자승 스님은 노란 염주를 손목에 채워주는 것으로 화답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9명의 실종자 고향인, 양승진, 조은화, 허다운, 남현철, 박영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씨 가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 제68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재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단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왔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격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형사 악사요...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현재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 KBS 굿모닝 대한민국
- SBS 미워도 다시 한번
- 채널A 그 여자 그 남자
- MBN 한정표 특종세상
-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의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 MBC 생방송 오늘아침
- JTBC 부모 찾기
- TV조선 가족 두끼에 문
- YTN 사이언스 과학행기